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말씀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다 뭔가 있는데, 나는 뒤쳐진 것 같아.” 성적, 재능, 집안 환경, 외모까지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몫’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도 그런 위치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각 지파의 땅 안에 흩어져 살 성읍들만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불안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지파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잊지 않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머물 곳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온 땅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는데, 이는 레위 사람들이 어디서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없는 지파”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명을 가진 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내가 설 자리가 없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지금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필요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 배 순 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여호수아 21:1~12절 다 같 이

설 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레위 지파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자리와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교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시
고,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많이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요즘 내가 “이건 내 몫이 아닌 것 같아”라고 느끼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